

석유화학

비중확대

중국 수출 증가와 역내 공급 감소로 단기 실적 호조 예상

한국산 화학제품의 대 중국 수출 여전히 견조해

최근 우리나라의 대 중국 폴리올레핀(PE 및 PP) 수출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7월의 대 중국 PE 수출량은 1분기와 2분기 월평균 대비 각각 50%와 57% 증가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PE 수출량 증가폭인 28%와 38%를 크게 웃돌아 중국향 수출의 빠른 증가를 보여준다. 올해 화학 시장의 부진과 함께 중국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동산 물량의 아시아 유입으로 인해 국내 화학 업체들의 대 중국 수출 전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3~4월에 정기보수를 마치고 가동률을 높여왔으며 3분기 화학제품의 성수기에 들어서며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량의 회복과 함께 중국의 폴리올레핀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비중도 상향 중이다. PE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 수입 수요 비중의 20%를 넘어섰고, PP의 한국산 비중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6%까지 상승했다.

유럽시장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동산 물량 유럽으로 유입

중동 화학업체들은 10월 이후 아시아 수출 비중을 줄이고 유럽으로의 판매량을 늘릴 계획이다. 유럽 시장의 가격이 아시아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유럽의 PE 및 PP 가격은 9월 이후 원가 상승과 재고 확보 수요에 의해 빠르게 상승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의 HDPE 가격은 톤당 1,740달러(FOB 기준)으로 아시아 시장 가격인 1,330~1,350달러(CFR 기준) 보다 300달러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PP 유럽 가격 1,730달러/톤 vs. 아시아 가격 1,430달러/톤). 유럽 내 스티크래커 4군데가 8~10월 중 정기보수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기보수가 계획된 Total, Lyondell Basell, Borealis, Shell & Exxon Mobil의 스티크래커 에틸렌 생산능력은 총 267만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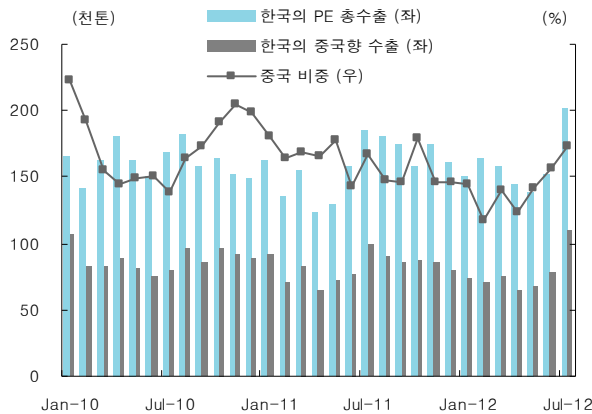
국내 화학 업체들 단기 실적 호조 예상

국내 화학 업체들은 4분기에도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수출 실적 호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가격 차이로 인한 arbitrage 거래 증가가 전체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시장 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역내 시장에서 중동 업체와의 경쟁이 감소함에 따른 수급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박기용 3276-6177
kypark@truefrie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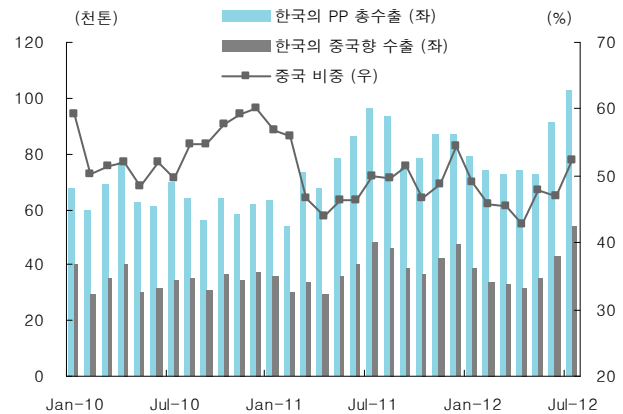
이나경 3276-6241
nklee@truefriend.com

[그림 1] 한국의 PE 대 중국 수출량과 총수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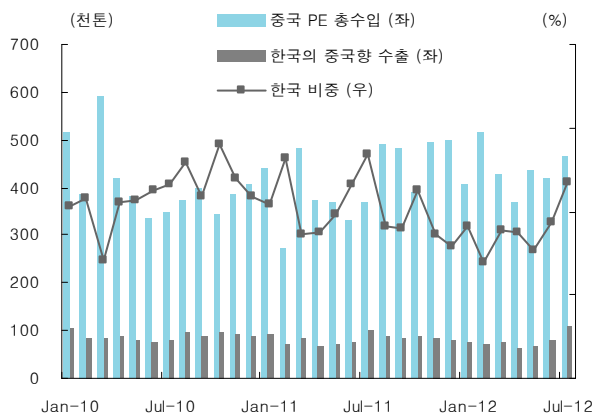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2] 한국의 PP 대 중국 수출량과 총수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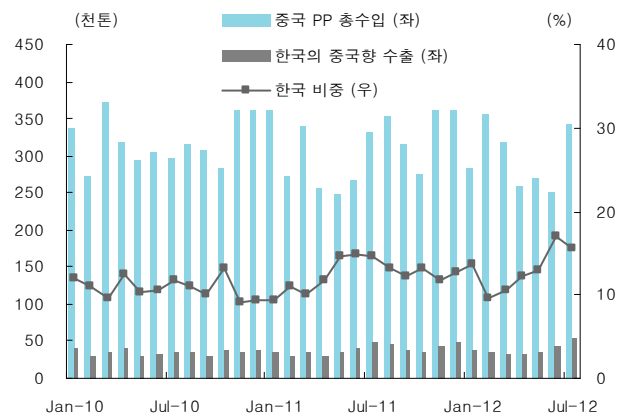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중국의 PE 수입량과 한국산 비중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중국의 PP 수입량과 한국산 비중



자료: KITA,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12년 9월 16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현 주가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립 : 현 주가 대비 -15~15%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현 주가 대비 15%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
- 중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